

■ 연구원 소식

○ 2015년 연구원 부산 답사 안내

- 날 짜 : 2015.12.19.(土)~20(日) / 장 소 : 부산, 경남 김해
- 내 용 : 2015년 3차 지역사 문화답사 "부산에서 만나는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12월 19일(土)~20일(日) 양일에 걸쳐, 부산과 경남 김해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 세부일정은 답사 당일, 자료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제3회 GHS 강좌 안내

- 날 짜 : 2015.12.19.(土) / 주제 : 잊혀진 땅, 간도의 진실
- 강 사 : 최병도(서울시립대, GHS운영위원)
- 장 소 : 보라매 글로컬 휴머니티 소아이어티 사무국 세미나실
(서울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2층)

○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활용방안 및 학술대회연구용역 사업결과물 제출

- 날 짜 : 2015.12.10.(木)
- 장 소 : 정읍시청
- 내 용 : 정읍시가 발주하고, 연구원이 실무를 맡은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활용방안 및 학술대회연구용역" 사업이 지난 12월 10일로 종료되었고 사업결과물을 발주처인 정읍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진안지역자활센터 인문학 강좌

- 날 짜 : 2015년 12월 10일(木) 10시

- 장 소 :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

- 내 용 : 연구원과 진안지역자활센터는 11월~12월에 다섯 차례의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네 번째로 임숙정 연구실장이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에서 "5·16과 12·12(군사쿠데타)"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 문형국 초대 이사장 부친상

- 지난 12월 10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문형국 초대 이사장의 부친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연구원 고문이신 김진소 신부님, 조광 前 원장님, 김병문 이사장님, 홍성덕 부원장님 등이 서울까지 달려가 조문하셨고 변주승 상임이사께서는 12월 13일 장지인 해남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문형국 前 이사장님과 유족들께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14일(월) : 주간회의

○ 12월 17일(목) : 정읍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 서류 제출

○ 12월 18일(금) : 동북아역사재단 최종심사, 진안자활센터 인문학강좌

○ 12월 19일(토) : 부산답사 1일차

○ 12월 20일(일) : 부산답사 2일차

■ 역사속의 오늘

○ 유신 대통령 - 1972. 12. 15

: 조국 근대화의 기수, 민족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를 생각할 때 대통령 선거 없이 종신회권을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 임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다. 임기는 6년이었고 응당 대통령 선거도 치러졌다. 단,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손이 아닌 요상한 이름의 '선거인단'에 의해 그 권리가 행해졌다.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것이다. 이는 요즘 애국보수세력에게 당장 "종북"이라는 거센 항의를 받을 이름일 테지만, 당시 정부에 의해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뒤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가 이뤄졌다. 1972년 12월 15일이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는데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다. 이미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1972년에 갑자기 왜 대통령 선거인단의 절반이 농민이 되었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거 이외, 통일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다.

12월 15일 선거를 통해 결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차 회의를 거쳐 대통령을 선출했다. 2359명의 대의원이 만장한 가운데 형식 다 갖추고 폼 다 잡은 '선거'가 이뤄졌다. 이윽고 발표된 선거 결과는 그들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성표가 2357표에 이른 것이다. 2표는 기표에 실수한 무효표. 북한의 100% 투표 100% 찬성에 맞먹는 선거 결과였다.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선거판에서는 기록적인 득표율에 해당할 것이다. 박정희는 이 99.9 퍼센트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뒤 온갖 긴급조치를 내리며 국민들의 입을 용접하고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6년 뒤 또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뿔한다.

이번에는 2581명으로 구성됐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축사'를 한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대의원 여러분들은 유신한국의 새 역사 창조의 기수로서 또한 통일 대업달성을 위한 민족 주체세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972년 우리가 10월 유신을 단행한지도 어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직면한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양상은 어떠했던가, 이러한 문제는 아랑곳도 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낭비와 비능률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었고 정파간의 극한투쟁과 선동정치의 폐해 속에서 무책임한 인기 전술 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내일의 진로도 정립하지 못한 채 목전의 일에만 급급하는 풍조가 우리사회에 구석구석에 가득 차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국보간난의 시기에 국정의 능률을 극대화해서 국력을 조직화해서 내외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자 우리는 마침내 구국적 일대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10월 유신이었습니다."

<朴大統領 開會辭 全文, 경향신문 1978년 7월 6일 1면>

가히 선거를 앞둔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이 아니라 휘하 병력을 모아 두고 자신의 부대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 사단장의 훈화가 아닐까 싶다. 이에 감명받았는지 제 2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무효표를 50퍼센트 줄이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다. 두어 달 뒤 실시된 체육관 선거에서 2,5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577명이 찬성하고 단 1명만이 무효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 시기를 두고 우리는 '4 공화국'이라 일컫거니와 왕국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선거'가 그 공화국에서는 펼쳐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삼엄한 체육관 내에서 100% 찬성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자 '박정희'라고 오기하여 무효표 하나를 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치도곤을 맞았다고 전한다.

선거 날 한 두시간 투자가 아까워서 또는 귀찮아서 내팽개친 우리의 한 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위대한 각하 만세를 부르짖은 희한한 나라에 맞서 그 나라의 "국민"이길 거부하고 생목숨을 들이밀며 역사의 수레를 끌고 온 이들이 빚어낸 열매다.

2012년 민주적인 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51.6%의 찬성률로 당선된 지금의 대통령은, 무효표가 1표 뿐인 99.9%의 찬성률로 대통령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다. 비극이라고 불려야 할까 희극이라고 불려야 할까?

1972년 12월 15일 그 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 유관순 - 1902. 12. 16

: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로 한참 회자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열아홉에 스러져간 유관순.

1902년 오늘 조선에서 태어나 열아홉에 불령선인으로 죽임을 당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일제에 의한 순교자적 이미지 이전에 유관순은 정의감 넘치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아는 학도였다. 기미년 독립선언서가 파고다 공원에서 황해도 사람 정재용에 의해 감격 속에 읽혀진 이후 전국을 휩쓴 만세 시위에 그녀는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당시 이화학당을 책임지고 있던 교장 프라이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드러눕자 차마 그 위를 지나가지는 못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독립 만세를 부르던 열혈 소녀였다.

만세 시위에 질려 버린 일본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림에 따라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크게 실망했다. 서울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동포가 만세 부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코 당을 천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니. 유관순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을 끌어들이고 고향의 교회와 유림들, 그리고 인근의 진천, 청주 등 다른 고장까지 찾아다니며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아마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19년 음력 3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1일 전날 밤일 것이다. 칠혹 같은 밤, 열일곱 소녀는 오늘날 독립기념관을 품에 안고 있는 매봉산 정상에 올라 봉합불을 들어 올린다. 이를 신호로 목천, 천안, 안성, 진천, 연기, 청주 등 여섯 고을 24곳의 산봉우리에 봉화가 올랐다.

다음 날 아우내 장터에서 수천 명이 독립만세를 부른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만세시위로 골머리를 앓아 온 일본 경찰은 글자 그대로의 살인적인 진압에 나서게 된다. 유관순의 만세 시위를 고무하고 도와 주었던 성공회 진천교회가 세운 진명학교의 교사 김구응과 그의 노모는 일본도에 맞아죽고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본 경찰의 총에 목숨을 잃는다. 유관순은 옥에 갇힌 지 1년이 지난 1920년, 만세 시위 1주년인 3월 1일을 맞아 옥중에서 만세 부르다가 엉망으로 두들겨 맞은 끝에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관순은 정작 일제시대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름 없이 민족의 제단에 몸바친 수많은 꽃다운 녀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러한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 박인덕의 주도로 기념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였다. 일제에 의해 토막 살해당했다는 등의 '유관순 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이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우익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웅시하기 좋은 조건에 있었다는 것도 이유였다. 기독교인이며 우익의 거물이었던 조병옥과 동향 사람이었고 천수를 누리며 일제에 붙어먹으며 변절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친일행각을 가리기 위해 "유관순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유관순 알리기 역사작업을 지휘했던 이화학당의 스승 박인덕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총무공 이순신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우상화됐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전두환에 의해 복원되었다해서 그 빛남이 줄어들지 않듯 유관순도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들을 역사의 전위로 복원시킨 이들의 과오가 그로 인해 가려지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화와 역사를 변별할 필요를 느낀다. 역사상의 유관순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기미년의 상징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신화적 요소들을 채색 가미한 것일까? 혹시 기념사업을 주도한 박인덕이 자신의 일제말 친일행적을 유관순의 신화화를 통해 덮어버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 박인덕은 당시 이화학당의 교사로서 어린 나이의 유관순에게 애국애족의 신앙을 불어넣어 준 인물로 손꼽힌다. 이랬던 그가 여러 사료와 기록을 통해 식민지 후반기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했음이 밝혀져 있다. 이것 역시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식민지 조국에 통분하며 일제에 맞섰던 소녀의 의지를 채색함으로 본인의 과오를 덮으려했다면 이는 진실을 가릴 거짓이 있음을 믿은 우매함에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노예 근성이 충만하고 자신을 위해 주먹 한 번 쓸 줄 모르는 비참한 백성들”로서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이웃 나라에 병합되어 버린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우리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 하며 살아가던 모든 곳에서 들고 일어났던 3월 1일은 '운동'보다 '혁명'에 가까웠다. 일제의 관련 통계로 확인된 사망자만 7,500명이 넘는데 그게 어찌 '운동'일까?

이것이 기미년 항쟁의 사실이다. 불굴의 의지로 일제와 맞섰던 유관순과 기록되지는 못했으나 유관순과 다름없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 역시 굳이 신화로 가공되지 않는다 해도 민족의 역사에 순결하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